

세계정당인사들의 환영적인 응대 등으로 상선급 초대합니다.

임핑 디너스타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관동 (명동출발) 10시~12시 (프린트 기사)
- 인천시 9월 이후 특별요청정신세 실시
- 예약: www.hpdyashy.co.kr 0801-320-7700



PGA 브리티시오픈 앞두고

앤서니 김에 쏠리는 관심

‘포스트 타이거’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재미교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사진)이 17일(한국시간) 개막하는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오픈골프대회를 앞두고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앤서니는 대회를 앞두고 노장 마크 오메라(미국)와 함께 대회장인 로열버크데일골프장에서 연습 라운드를 치렀다. 오메라는 10년 전인 1998년 로열버크데일에서 열린 브리티시오픈을 제패했던 선수. 당시 오메라는 마스터스에 이어 브리티시오픈까지 석권하며 ‘올해의 선수’상을 받는 등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이제 우승 후보 대열에 끼진 못하지만 오메라는 로열버크데일골프장에서는 인기가 높다. 젊은 선수들은 로열버크데일골프장의 공략법에 대해 한마디라도 얻어 들으려고 오메라 옆에 줄을 섰다.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나이 차를 뛰어 넘는 친구로 지내는 것으로 유명한 오메라는 평소라면 우즈와 연습 라운드를 했겠지만 우즈가 불참하자 연습 파트너로 앤서니를 선택했다.

오메라가 앤서니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앤서니가 스물 세 살 때 타이거보다 스윙이 더 낫다”고 극찬했던 오메라는 연습 라운드를 함께 한 뒤 “앤서니가 올해 2승을 거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메이저대회에서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이번 대회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선수”라고 말했다.

연습 라운드 때 코스 구석 구석을 앤서니에게 설명해준 것은 물론까지. 브리티시오픈에 처음 출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링크스코스가 생소한 앤서니에게 커다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너무 작아 어떻게 볼을 올릴까 걱정됐다”고 링크스코스에 대한 첫 인상을 밝힌 앤서니는 황이리 벙커에 일부러 볼을 집어넣고 나서 빠져 나오는 요령을 연습했다.

아메리칸 리그

울스타전 11연승



아메리칸 리그(AL)가 미국프로 야구 울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NL)에

11연승을 달렸다.

AL 울스타는 16일(한국시간)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제79회 메이저리그 울스타전에서 3-3으로 맞선 연장 15회말 1사 만루에서 터진 마이클 영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4-3으로 이겼다.

1997년부터 울스타전 11연승을 달린 AL은 이로써 리그 우승팀이 올해도 월드시리즈 1,2,6,7차전을 홈에서 치를 수 있는 어드밴티지를 확보했다.

최우수선수는 7회말 동점 홈런을 때려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 J.D 드루(보스턴·4타수 2안타 2타점)가 차지했다. 올해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명소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날 경기는 현지 시간 15일 저녁 8시에 시작돼 메이저리그사에 남을 사상 유례없는 혈전으로 자정을 훌쩍 넘긴 16일 새벽 1시37분에서야 끝났다.

공식 경기 시간은 4시간50분으로 역대 울스타전 중 가장 길었다. 역대 전적에서는 NL이 40승2무3패로 앞서 있다.

더욱 뜨겁게 달아오른 ‘7월의 승부’



4강행 탄력 받은 KIA



답답한 삼성



한화 3위 굳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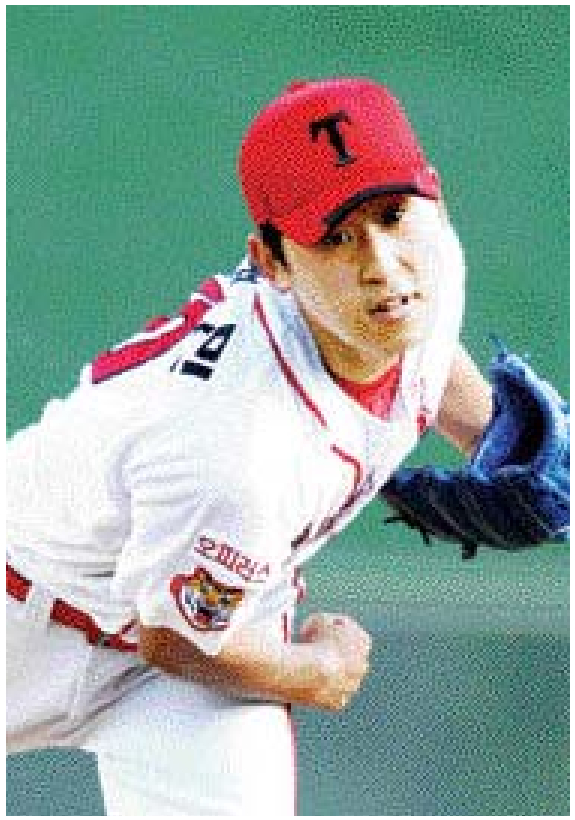
두산, SK 독주 저지

어느 팀도 안심할 수 없다

8월 올림픽 휴식기를 앞둔 프로야구가 막판 순위 뒤집기 경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15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벌어진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에이스 윤석민의 호투를 등에 업고 3-2로 승리해 97일 만에 5위 탈환에 성공했다. 중위권을 굳건하게 지키던 4위 롯데의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멀게보이던 4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같은 날 2위 두산은 SK를 상대로 8연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선두 SK와의 격차를 4.5게임차까지 좁혔다. 7월 1일 2위와 10게임차로 선두 독주를 하던 SK의 추락과 달리 두산의 무서운 뒷심 폭발로 잠잠하던 1위 싸움도 불이 붙었다. 무엇보다 4위 자리를 향한 롯데·KIA·삼성·우리 4

팀의 양보할 수 없는 순위 다툼이 막바지로 향해가는 프로야구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4게임 중 순위 싸움의 가장 우위에 선 팀은 KIA다. 시즌 초반 8승19패로 ‘잔인한 4월’을 보냈던 KIA는 마운드를 전면 개조했다. 시즌 초반 선발전 중 현재 생존한 투수는 윤석민, 이대진 뿐이다. 그러나 이범석·디아즈·데이비스로 새로 구성된 선발진



■ 전반기 막판 순위 경쟁 치열

상승세 KIA, “4강까지 가자”

4위 롯데 하락세...삼성 주춤

두산, 1위 SK와 승차 좁히기

은 15일까지 최근 10경기 평균자책점이 1.09다. 퀄리티스타트는 8번을 기록했고, 완투·완봉승도 각각 한번씩 나왔다. 게다가 ‘홀런 기군’으로 목마른 타선에 최희섭·이재주의 두 거포가 가세하면서 전력이 대폭 보강됐다.

반면 15일 현재 4위를 유지하고 있는 롯데는 7월 전적이 4승7패로 부진한 데다 주장 정수근이 음주 폭행 시비에 휘말리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은 대로 가라앉았다. 롯데를 이끌던 조성환-이태호-가르시아-강민호의 막강 타선

도 1할대 빈타로 허덕이면서 4위 자리가 위태롭다. KIA에 밀려 15일 현재 6위로 내려앉은 삼성도 4강 길이 험악한 상태다.

시즌 중반 데려온 용병 톰 션은 10.73의 평균자책점으로 6패만 인은 채, 올 시즌 6승 8패 5.82의 평균자책점으로 기록한 오버몰러와 함께 16일 퇴출됐다.

힘 빠진 마운드에 타격도 제 풀이 꺾여 마무리 오승환은 16일째 휴업 상태다. 그나마도 우리의 상승세에 6위 자리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다.

우리는 전준호, 김동수, 송지만의 베테랑 타자들의 활약과 함께 지난 6월24일 첫 선을 보인 다카쓰가 0.84의 평균자책점 5세이브로 마무리 역할을 완벽수행하면서 뒤늦게 중위권 도약을 위한 시동이 걸렸다.

‘최희섭’날개를 단 KIA와 ‘다카쓰’라는 엔진을 새로 장착한 우리, 주장 정수근의 폭행 사건과 함께 ‘뺏’이 빠진 롯데, 그리고 ‘탈빈 마운드’의 삼성.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네 팀의 경쟁으로 프로야구 순위는 날마다 요동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대표팀 탈락 윤석민 ‘분노의 투구’

“다승왕은 양보 안해”

지난 14일 올림픽 야구 대표팀 엔트리 발표 뒤 이후 각종 포털 사이트 야구 게시판은 명단에서 제외된 윤석민 <사진>의 얘기로 들끓고 있다. 선발은 물론 중간과 마무리를 오가며 전천후 활약을 했던 ‘다승왕 후보’ 윤석민은 송승준과의 선발 경쟁에 밀리면서 불명예로 발을 뺐지 못했다.

강속구와 자유자재의 변화구로 배짱투구를 하는 윤석민은 김경문 대표팀 감독의 저율질에 밀려나 베이징행에

합류하지 못했다. 반면 올 시즌 3.19의 평균자책점으로 5승 3패 3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는 2년차 임태훈은 경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대표팀에 깜짝 발탁되면서 윤석민 탈락 논란에 불을 붙였다.

엔트리 발표 이후 15일 윤석민의 첫 등판 상대는 공교롭게도 롯데 송승준이었다. 윤석민은 사직경기에서 7이닝을 5피안타 5탈삼진 1실점으로 막고 송승준보다 먼저 ‘10승 고지’에 오르며 분풀이를 했다. 5회까지는 단 한명의 주자도 진투를 허용하지 않는 퍼펙트 게임을 선보였다.

반면 송승준은 윤석민의 호투에 밀려 패전투수의 명예를 썼고, 임태훈은 같은 날 SK와의 경기에서 3명의 타자를 상대해 2피안타 2실점하며 팬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윤석민의 ‘분노의 투구’에 팬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고, 김경문 감독은 윤석민과 임태훈의 엇갈린 행보에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이번 주말 윤석민은 두산과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김경문 감독 앞에서 공을 던진다. 이날 윤석민의 투구 내용에 벌써부터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장애인 체전 광주대회

엠블럼 등 상징물 확정

오는 10월5~9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제 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상징물이 확정됐다.

광주시는 16일 “각종 홍보물에 활용할 대회 상징물 3종 4점(엠블럼 1, 마스코트 1, 포스터 2)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엠블럼의 전체적인 형태는 광주의 ‘光’자를 모티브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역동적인 장애인의 모습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우러져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마스코트는 광주시의 마스코트인 빛돌이가 장애인의 손을 잡고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특색에 맞게 응용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이럴수가...

K-리그 세계 랭킹 70위

베트남(51위) 보다 뒤져

국제축구사통계연맹(IFFHS)이 프로축구 K-리그의 상반기 세계랭킹을 싱가포르(37위)와 베트남(51위)보다도 한참 뒤지는 70위로 매겨 논란이 예상된다.

IFFHS가 16일 홈페이지(www.iffhs.de)에 공개한 ‘2008 세계 축구리 K-리그 순위 상반기 경향’에 따르면 한국(125.5점)은 전 세계 100개 축구리그 중에서 70번째다.

K-리그 순위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에 함께 포함된 이란(36위), 사우디아라비아(41위), 아랍에미리트연합(47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30위), 일본(38위), 중국(57위), 태국(66위) 등 아시아권 국가와 비교할 때도 최하위권을 밀었다.

아시아에서 한국보다 뒤 순위에 있는 나라들은 홍콩(72위), 호주(86위), 인도(89위), 카자흐스탄(99위) 등이다.

세계 최강의 리그는 643점을 얻은 아르헨티나가 차지했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562점으로 2위에 올랐다. 또 브라질(555점)이 3위에 오른 가운데 이탈리아 세리에A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가 나란히 505점으로 공동 4위를 기록했다.

IFFHS 또 “아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을 포함해 중동 국가들의 실력이 좋아졌지만 요르단과 한국은 순위가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K-리그의 경우 2008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나선 포항 스틸러스와 과 전남 드래곤즈가 모두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하면서 큰 점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IFFHS는 세계클럽랭킹에 포함된 각국 상위 5개 프로 팀의 국제축구연맹 및 아시아축구연맹 등 대륙연맹 주관 경기, 자국 리그, FA컵 등의 승수에 가점을 배정해 합산한 점수로 각국 리그의 순위를 결정한다.



17일(목)

▲양국 올림픽대표 최종 평가전(16:00·KBS2)

▲MBC 미디어텍 청소년골프 최강전 최종(14:00·MBC)

▲2008 프로야구(KIA·롯데)(18:20·XPORTR), <LG·한화>(18:30·MBC ESPN), <SK·두산>(18:00·KBS N SPORTS), <우리·삼성>(18:10·SBS스포츠)